

어제 할 수 없었던 것도  
오늘은 해낼 수 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니까

SBI저축은행 X 최대호\_임어보시집



# 희망저축

SBI저축은행 매거진  
Winter 2022 Vol.32



혼란이와 같이 힘차게 포효하며  
더 밝은 미래로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 희망저축

SBI저축은행 매거진  
Winter 2022 Vol.32

발행일 2022년 1월 7일

발행인 정진문, 임진구

발행처 SBI저축은행 홍보팀

담당 유형근 (02-3416-421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기획·디자인 디스토리

웹진 sbiwebzine.co.kr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007(2022.01.04.)

Winter 2022 Vol.32

# CONTENTS

## Life+

04 SBI pick's  
SBI인들의 2022 새해소망

06 세상읽기  
검은 호랑이의 해 대중문화 속, 호랑이가 내려온다

10 SBI 체험현장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와의 노래

14 유튜브 중계  
짧지만 강한 유튜브 활용법

## News+

18 SBI 포커스 ①  
그 시절 감성에 저축을 더하다, 저축가요 시즌3

20 SBI 포커스 ②  
이소미 프로의 KLPGA 시즌 리뷰

22 SBI 포커스 ③  
유소년 배구 꿈나무 공동 후원 '피어오름 프로젝트'

26 New Face  
리테일영업1팀 임종민 외 5명

28 SBI 희망뉴스  
2021년 4분기 주요소식

34 열린 편집실  
편집후기 / 다른그림 찾기





壬寅年

## 검은 호랑이의 해 대중문화 속, 호랑이가 내려온다

2022년은 임인년 범띠 해. 10개의 천간 중 임(壬)이 검은색을 띠는 물(水)을 상징하므로 검은 호랑이띠라고도 한다. 동물원에서 보았던 육중한 몸집의 리얼 호랑이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편하게 즐기는 대중문화 속에서도 호랑이를 찾을 수 있다. 호랑이가 주인공인 새해를 맞이하여 대중문화 속 다양한 호랑이를 만나보자.

김홍도 송호도(177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 호랑이가 가진 여러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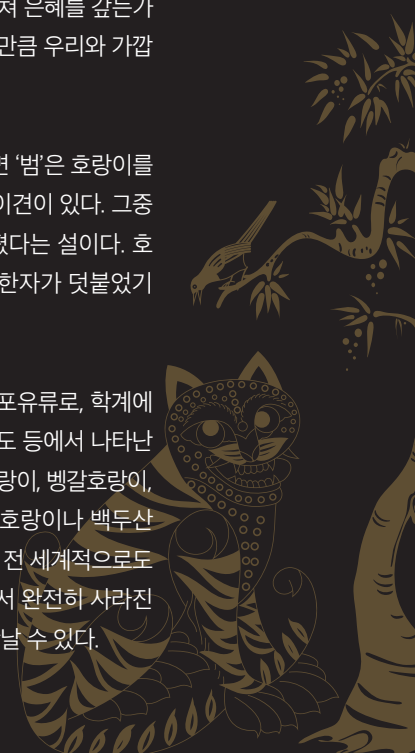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랑이만큼 친근한 동물도 없을 것이다. 열에 아홉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동물로 호랑이를 떠올릴 테니까. 다만 호랑이가 우리나라 상징 동물로 공식 지정된 적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지만 이 외에 공식적으로 지정된 국수나 국목, 국조는 공란에 가깝다.

그럼에도 호랑이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귀한 동물. 단군 할아버지 시절 ‘곰과 호랑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모양도 호랑이와 비슷하고, 어릴 적 수없이 들은 전래동화에도 호랑이가 등장하니 말이다. 전래동화 속 호랑이가 보여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변화무쌍하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무서운 멘트를 날리면서도, 꾀 많은 토끼에게는 번번이 속아 넘어가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는가 하면, 곳곳에 벌벌 떠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한다. 그만큼 우리와 가깝다는 방증이다.

호랑이는 다른 말로 범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범’은 호랑이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 이와 달리 호랑이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 그중 하나가 범과 이리를 합쳐 ‘호랑’이라고 부르던 것이 호랑이로 굳어졌다는 설이다. 호(虎)는 한자로 호랑이를 뜻하고, 여기에 이리를 뜻하는 랑(狼)이란 한자가 덧붙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분류로 보면 호랑이는 식육목 고양이과 표범 속에 속하는 포유류로, 학계에서는 500만 년 전에서 200만 년 전, 시베리아, 중국 북동부 및 한반도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호랑이는 분포 지역에 따라 시베리아호랑이, 중국호랑이, 뱅갈호랑이, 수마트라호랑이 등 여덟 종으로 구분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한국호랑이나 백두산 호랑이라 부르는 시베리아호랑이는 남한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전 세계적으로도 시베리아호랑이는 멸종위기종이다. 그렇다고 호랑이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우리 대중문화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어령 [심이지신 호랑이] 생각의나무



## 스포츠계의 히트 아이템, 호랑이 상징

호랑이는 대중문화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시대에 따라 호랑이가 주는 대중적 이미지도 다양하다. 88 서울 올림픽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MZ 세대들에게 호돌이는 국사책에서나 나올 올드한 캐릭터에 지나지 않겠지만,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호돌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호랑이는 스포츠계의 단골 손님이기도 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도 호랑이에서 나왔다. 새하얀 털을 자랑하는 백호 '수호랑'은 반달곰을 본 따 만든 평창 동계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와 사이좋게 짝을 이뤘다. 야구팬이라면 기아 타이거즈의 마스코트 호랑이도 빠질 수 없다.

스포츠 심볼로 영역을 넓히면 호랑이는 수도 없이 많다. 대한축구협회의 엠블럼에도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 지난 2020년, 대한축구협회는 19년간 사용해 온 호랑이 엠블럼의 새 디자인을 발표했다. 용맹한 백호의 날카로운 눈매와 무늬를 강조했다고 한다. 일부 고양이 같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국제경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에 호랑이를 단 대표팀을 보며 함께 응원하고 있다.



호돌이 ©1983 SLOOC



수호랑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엠블럼 © 대한축구협회



범내려온다 ©YouTube 한국관광공사TV

에서 나왔다. 자라가 토끼를 부른다는 게 호랑이로 잘못 부른 뒤, 산속에 누워 있던 호랑이가 내려오자 자라가 벌벌 떠는 장면을 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에서 호랑이가 주목받은 게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에는 한국의 힙합 대중화를 이끈 드렁큰타이거가 활동하기도 했다. 그룹의 멤버로 활동했던 래퍼 타이거JK도 이름에 호랑이가 있다.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신사동 호랭이도 활동명에 호랑이가 붙었다.

사람 이름으로 호랑이를 쓸 만큼 우리가 호랑이와 가까운 이유는 아주 오래전 호랑이를 산군이나 산왕, 산신으로 여기며 숭배했던 오래전 민속 신앙과도 관련이 깊을 것이다.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여러 신화와 민담에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호랑이 자체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용맹한 기질 때문에 우리가 호랑이를 유독 닮고 싶어 하는 지도 모른다. 서양에는 사자, 동양에는 호랑이가 있다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이젠 동물원 외에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호랑이. 임인년 범띠 해를 맞아 더 용감하고 맹렬하게 호랑이 닮은 한 해를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MZ 세대라면 커다란 고양이 똥랑이처럼 원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꿈을 꿔도 멋지겠다.



맹호도, 조선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대중문화에 다시 부는 호랑이 바람

MZ 세대들에게는 88 올림픽의 호돌이보다는 무직타이거의 대표 캐릭터 '똥랑이'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무직타이거는 대기업 퇴사 후 디자이너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브랜드의 이름. '무직'이란 한자가 그대로 직업이 없다는 뜻인데, 사랑스러우면서도 엉뚱하고 비주얼적으로는 똥똥한 호랑이, 이른바 똥랑이를 출시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식음료 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똥랑이 ©MUZIKTIGER



세상에 하나뿐인

# 엄마와의 노래

글. 명동지점 서한솔



신사동 스튜디오에 아름다운 모녀가 등장했다.

평소에 동기들의 결혼식 축가를 전담할 만큼 실력파로 알려진 '서한솔 지점원'과 딸에게 본인의 노래 실력을 그대로 물려준 '그녀의 어머니'가 추억의 명곡으로 입을 맞췄다.

두 모녀가 부를 곡은 1994년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 추운 겨울에 왜 가을 노래인가요?'라는 질문에 어머니는 '30년 전 딸아이 나이 즈음에 청춘의 위로를 받았던 각별한 노래'라고 답했다. 시대를 넘나드는 명곡을 함께 부른 모녀의 하루는 어땠을까?

## 엄마에게 주고픈 선물

저는 평소에 노래 부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와 가까운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내 이벤트를 보자마자 주변 동료들이 "서한솔 씨 한 번 신청해 봐"라고 등 떠밀어 주셨습니다. 뽀뽀하게 나서기 쭈뼛거렸는데 '진심' 고맙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엄마 생신이 가까워 엄마랑 함께 노래한 음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갑자기 곡, 반드시, 절대로 '당첨' 되어야겠다는 의지에 불타올랐습니다. 저에게 엄마와의 한복소리를 남길 기회이자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드는 엄마를 설득하는 건 너무 쉬웠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내가 그거 배워보고 싶어서 그래~ 한 번만 하자? 응?"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보컬 트레이닝도 받는 수업이라 가벼운 마음에 약속된 날 출발했습니다. 잘 아시는 노래라고 하시더니 차 안에서 자꾸 노래 틀어달라고 하십니다. 집에서 녹음 스튜디오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엄마는 '수십 번' 들고, 가사를 읊조리며, 창밖만을 쳐다보셨습니다. 표정에서 엄마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까지 괜히 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녹음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 고음 불가에서 고음의 신으로

엄마랑 나를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건 보컬 트레이닝 선생님의 하이톤 인사부터였습니다. 굉장히 유쾌하신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 덕분에 엄마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미소 짓는 얼굴을 보입니다. 엄마의 눈빛을 보고 제 마음은 더 빨리 포근해집니다. '그래, 무엇보다 엄마가 재밌어야지!'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 소리 내는 자세와 발음 등을 배웁니다. 스스로 고음 불가라고 하셨던 엄마는 점점 '고음의 신'으로 녹음실을 꽉 차게 만듭니다. 저도 질세라 화음도 넣고, 깨끗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한솔 씨 가수 해 볼 생각 없냐고?" 그 말에 엄마가 더 발그레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속으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선생님이 엄마를 닮아 예쁜 목소리를 가졌다고 칭찬 세례를 해주실 때 노래를 녹음한다는 생각은 저 너머로 사라졌고, 엄마랑 나는 흐뭇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 청춘의 위로가 되었던 노래

엄마랑 함께 녹음한 곡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중에 엄마가 가장 좋아하신다는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골랐습니다. "엄마? 겨울인데 가을 노래?" 엄마는 이 노래를 겨울에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윤도현 씨가 1994년 12월에 발매했더라고요. 날이 많이 추워지니 따뜻했던 가을도 그리고, 30년 전 즈음 엄마가 청춘일 때 위로가 되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드라마 OST로만 알던 노래를 엄마 이야기를 듣고 다시 들어보니 따뜻한 가사와 잔잔한 멜로디가 이 겨울을 포근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 주고, '네가 하는 그 선택이 맞다고 늘 응원해주는 엄마의 사랑 덕분에 지금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가족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평생 사랑스럽고 씩씩한 딸이 될게요! 엄마 사랑해요!



## 보컬 트레이닝 Vocal Training

### 모래공장 이정은 쌤이 말하는 '보컬 트레이닝의 효과'

우리나라 분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 분들조차 일단 한 번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시면 본인의 '단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컬 트레이닝의 목적은 단점들을 잘 캐치해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레슨'을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다음엔 하는 노래는 확연히 차이가 생깁니다. 훨씬 소리가 나아지는 거죠. '원 포인트'라도 노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받아보시면 효과를 느끼실 것입니다.



### 이정은 보컬 트레이너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대중음악학과 석사  
'모래공장 아카데미' 보컬 트레이너 /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서울중앙예술학교 보컬과,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보컬과 외래교수.  
하우엔터테인먼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보컬 트레이너 / 다수 현역 연예인 및 고래래퍼, 너의 목소리가 보여, 슈퍼스타K, 보이스트롯 등 출연자 보컬 트레이닝.

• 체험장소 모래공장 아카데미 • 문의 : 02-3448-1770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16 2, 3F (신사동, ICL빌딩)

## 흥미롭고 쓸데없는 랜덤 지식 5탄



전화를 건다고 표현하는 이유 전자레인지 2개면 더 많이 들리는 이유 김을 김이라고 부르는 이유 맥도날드가 팔았던 의외의 제품



### 출퇴근 시간 뭐하니?

## 짧지만 강한 유튜브 활용법

서울시 빅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서울 출근 시간은 평균 53분이라고 한다. 경기도나 인천으로 지역을 넓히면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 그냥 흘러보내기에는 뭔가 아까운 이 시간을 위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한다. 직장 근처에 집이 있는 직장 근접족들도 실망하긴 이르다. 짧게는 15초 길게는 3분에 불과한 숏폼 콘텐츠도 담았으니 눈여겨보시길.

**숏폼 (Short-form) 이란?**

짧은 영상을 의미하는 숏폼의 시작은 비디오 중심의 SNS 미디어 '틱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초에서 7분까지 동영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이 플랫폼에 젊은 층들이 영상을 업로드 하여 공유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형태의 영상은 현재 틱톡뿐만 아니라 유튜브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모든 도전 다 하는 최도전

###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 최도전

1분 이내의 짧은 도전만 모았다!



'모든 도전 다 해준다'는 모토를 가진 최도전은 채널명부터 '도전'이 붙었다. '이런 걸 왜 하나' 싶은 일도 많지만, 그런 엉뚱함이 최도전이 가진 매력이다. 도전 목록만 봐도 황당한 웃음을 짓게 만든다. 손소독제를 몇 번 눌러야 다 쓰는 건지 알아보거나, 오징어 게임 참가자 수가 진짜 456명인지 세어보는가 하면, 짜장면의 면 길이를 재고, 심지어 커피믹스 안에 들어 있는 커피 가루까지 직접 센다.

최도전 채널의 영상은 대부분 1분 남짓, 따로 구분한 쇼츠 영상의 경우 30초가 넘지 않는다. 여기에 속도감 있는 빠른 편집도 빼놓을 수 없다. 1.5배속은 물론 2배, 3배속으로 편집한 영상은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고 영상에 빠져들게 만든다. 가령 동전을 던져 같은 면이 10번 연속으로 나올 때까지 하는 실험은 총 2시간 49분 25초가 걸렸는데 영상은 단 1분 4초 만에 끝난다. 재미와 스릴, 약간의 감동까지 챙겼다.

구독자와의 소통 능력도 훌륭한 편이다. 궁금한 것에 대해 댓글을 남기면 최도전이 직접 실험해주기도 하니, 필요한 경우 댓글을 활용해도 좋다.







랭킹, 이슈, 상식 등을  
한 번에 담았다!

## 타임스넥

'시간을 먹는' 킬링타임용 영상을 제공한다.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 나면 그럴싸한 정보들이 여기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랭킹, 이슈, 상식, 미스터리, 만화 카테고리로 구분한 점도 편리하다. 이중 순위를 매기는 랭크 스낵은 건축부터 동물과 인물, 게임, 신박한 아이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사실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유튜브도 많지만, 이 채널이 가진 장점은 꾸준한 업로드다. 2017년 10월 첫 영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0개가 넘는 영상이 축적되어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콘텐츠를 바탕으로 '스낵 인문학'이라는 책까지 출판했다.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타임스넥 유튜버는 '남는 시간을 때울 때 부담 없는 책, 그러면서도 삶에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책을 소개했는데, 이는 타임스넥 채널에도 잘 들어 맞는다.

스낵이 캐릭터도 앙증맞다. 아예 타임스넥 Q&A 영상을 따로 만들 정도. 출퇴근길,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유튜브로 손색없다.

©YouTube 타임스넥



## 14F 일사에프

가볍게 듣기 좋은  
뉴스만을 제공한다!



일사에프로 불리는 14F는 MBC 뉴미디어 뉴스국이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답게 형식도 내용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짜집기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전하는 등 신뢰하기 힘든 뉴스가 난무하는 유튜브 세상에서 14F는 최소한의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체적으로 선별한 뉴스는 대체로 시의적절하고 강다솜, 이영은 아나운서의 명료한 내레이션은 굳이 영상을 보지 않고도 뉴스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

뉴스라고 해서 지루하고 딱딱할 거라는 생각은 버릴 것. 평균 3분에서 5분으로 러닝타임도 짧은 데다 전하는 내용도 흥미롭다. 속이 꽉 찬 최고의 가성비 만두를 알려주고, 최근 식품업계의 트렌드인 이색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직접 맛보고 평가한다.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나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전하는 데 충실하다. 사건 사고를 전하는 뉴스에 지친 사람이라면 14F가 전하는 가벼운 뉴스를 시청하길 추천한다.

©YouTube 14F 일사에프





## 그 시절 감성에 저축을 더하다

SBI저축가요 × 저축가요 시즌 3

‘SBI 저축가요’ 시리즈는 2019년부터 SBI저축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저축 권장 캠페인’이다. 과거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명곡을 저축송으로 개사하여 SBI만의 위트있는 방법으로 풀어 나가는 캠페인이다. 이번 시즌3에는 90년대 히트곡을 개사한 <그냥 모았어>와 <모을 수 없는 너> 두 곡의 저축송을 발표했다.

이번 저축가요 뮤직비디오에서는 90년대 감성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90년대의 의상과 소품을 활용하여 씬(scene)을 구성하였고, 가사에 딱 맞는 주인공의 과한 표정 연기와 시선을 사로잡는 조연들의 발랄한 댄스까지. 그 시절을 경험했던 이들이라면 공감되는 90년대 영상미를 재현하였다. 이번 저축송이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MZ세대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대상에 대한 새로움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그 시절 감성을 선물하고자 한다.



그냥  
모았어

처음엔 그냥 모았어  
돈도 벌고 해서  
부동산에 주식을 해보니  
어렵게만 하데  
모아서 적금도 들었어  
저절로 이자가 쌓이데  
너도 내 통장을 보았다면  
최고라고 했을거야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모았어  
돈도 벌고 기분도 그렇게 해서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냐...

이번에 공개된 SBI저축가요 <그냥 모았어> 편은 1994년의 히트곡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를 유머러스하게 개사하였다. <그냥 모았어> 뮤직비디오에서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소재들을 사용했다. “부동산에 주식을 해보니 어렵게만 하데” 등의 가사는 ‘빚투’로 불리고 있는 요즘의 무리한 투자 열풍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좀 있음 만기 눈앞이야, ‘같이 저축할까?’라는 가사를 통해 함께 저축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모을  
수  
없는  
너

뒤에 취한 니 목소리  
문득 사계 됐다던 그말  
슬픈 예감 나누면서  
네게로 달려갔던 날, 그밤  
희미한 두눈으로  
날받기며 넌 말했지  
한정판 구성인데다  
남아있는 수량도 얼마 없었다고  
머칠 사이 쌓인 니 택배들  
집으로 가져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8090세대의 남자라면 노래방에서 한 번쯤은 불러봤을 BANK의 <가질 수 없는 너>가 새로운 저축송으로 탄생하였다. ‘과소비에 빠진 연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소재로 ‘돈이 있어도 모으지 못하는’ 오픈 상황을 가사로 그려냈다. 쇼핑에 중독되어 한정판 구입 성공과 택배 도착에 희열을 느끼는 여자주인공과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남자주인공의 표정으로 요즘의 과소비 세태를 현실적으로 뮤직비디오에 반영하였다.





## SBI골프단 이소미 프로의 KLPGA 시즌 리뷰

2021시즌 상·하반기 개막전을 싹쓸이하고 통산 3승을 달성하며 KLPGA의 새로운 히로인으로 자리 잡은 이소미 프로! 지난 4년 동안 SBI저축은행과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이소미 프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저에게 SBI는 버팀목이자 응원이죠!”



**Q 「2021시즌 2승」을 올리기까지 무엇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하는지요?**

정말, 정말, 빈말이 아니라 'SBI'의 힘이 컸습니다. 제가 온전히 골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항상 지원해 주신 'SBI저축은행'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특히 시즌 중에 정진문 대표님, 임진구 대표님께서 응원 메시지와 격려 전화를 많이 해주시는 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골프를 시작한 후로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제 주변에 든든한 버팀목들이 있어서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SBI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Q 2021년 시즌은 이소미 프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다승을 했던 해이고 그러면서 골프를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골프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서 이제 골프에 대해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겸손해지고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내년인 2022시즌에는 많이 부족한 퍼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계획이에요. 특히 퍼팅할 때 저만의 리듬을 갖기 위한 훈련에 집중할 계획이에요.

**Q 골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제가 최경주 프로님의 고향 후배인 것은 알고 계시죠? (웃음). 초등학교 때 최경주 프로님의 영향으로 제가 다니던 학교에 '방과 후 수업 골프반'이 생겼고 이게

계기가 되어 골프 시작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옆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깐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하하. 최경주 선배님과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제가 골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소미 프로와의 인터뷰 중

**Q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 실력이 세계적인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지원과 노력과 대단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부모님들의 열정이 세계랭킹 1위라고 생각합니다.

**Q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진출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계획으로는 2022년말에 LPGA Q스쿨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LPGA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뛰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골프 선수로서 골프를 시작했으면 한번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부딪혀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소미 프로의 열렬한 팬인 SBI저축은행 직원들에게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SBI의 열렬한 팬입니다! (짝짝짝) 사랑하는 SBI 임직원분들도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이 되길 바라며, 내일보다 더 행복한 모레가 될 수 있도록 저 이소미도 응원할게요! SBI가 우리나라 최고인 만큼 저도 우리나라 최고의 골퍼가 되겠습니다!





SBI 저축은행 × 현대건설 현대건설배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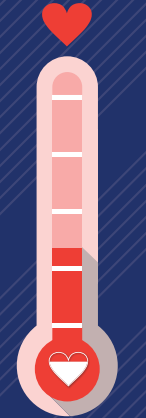
## 유소년 배구 꿈나무 공동 후원 피어오름 프로젝트

SBI저축은행과 현대건설배구단이 유소년 배구선수  
후원과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해 손잡았다.  
이름하여 '피어오름 프로젝트'

올 시즌 엄청난 경기력으로 V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배구단. 그들의 3라운드 경기 현장에 다녀왔다.  
과연 오늘의 승리 팀과 후원금을 적립할 경기 MVP는?

### SBI저축은행 × 현대건설 피어오름 프로젝트 수훈선수

 김연경 No.8 LIBERO 21.11.05	 황민경 No.15 LEFT 21.11.10	 이다현 No.12 CENTER 21.11.13
 양효진 No.14 CENTER 21.11.17	 이현지 No.19 LEFT 21.11.20	 양효진 No.14 CENTER 21.11.26
 양효진 No.14 CENTER 21.12.03	 정지윤 No.13 LEFT 21.12.07	 이다현 No.12 CENTER 21.12.11
 고예림 No.17 LEFT 21.12.14	 김연경 No.8 LIBERO 21.12.17	 야스민 No.10 RIGHT 21.12.22
 정지윤 No.13 LEFT 21.12.26	 황민경 No.15 LEFT 21.12.30	 ? Coming Soon



2022년 1월 1일 현재



### 올림픽과 국가대표, 그리고 배구 열풍

2021-2022 V리그가 한창이다. 시즌 중반을 지난 시점  
여자배구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특히 작년 도쿄올림  
픽에서 세계 4위라는 높은 성적을 올린 여자배구 대표  
팀의 열기가 V리그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장 좌석은  
연일 매진 행렬이고 선수들의 인기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이 중에서 현대건설배구단은 현재 3라운드까지 단 1패만  
기록하며 V리그 순위 1위에 랭킹 되어 있고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V리그 흥행에 큰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 1등과 1등이 만났다.

V리그 1등 현대건설배구단과 저축은행 업계 1등 SBI저축은행(자산기준/21.09.30)이 유소년 배구 꿈나무  
지원하기 위해 만났다. 이름하여 <피어오름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배구 꿈나무들이 희망을 '꽃 피우고',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현대건설 배구단의 매경기마다 'MVP+SBI저축은행'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적립해 나가며, 시즌이 종료된  
이후 적립된 후원금은 유소년 배구선수에게 전달되어 배구 꿈나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국내 최고의 선수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쓰일 예정이다.

- \* MVP선정 방식: 경기 종료 후 SNS(현대건설배구단 인스타그램)에 100% 팬투표를 통해서 선정
- \* SNS이벤트: SBI저축은행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MVP 맞추기, 투표 인증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건설 주요 선수들의 유니폼과 사인볼, 달력 등이 경품으로 지급되어 많은 배구 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 소외아동 후원에서 유소년 스포츠까지

SBI저축은행은 <SBI골프단>운영, 유소년 야구단 <에스비아이콘즈> 후원에 이어서 유소년 배구 선수 후원 활동까지 스포츠 꿈나무 후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SBI저축은행의 소외아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으며, 소외아동 지원과 더불어 유소년 스포츠까지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주변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다.



## 현대건설 배구단 직관기 \_ 흥보팀 유형근

<피어오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인 현대건설배구단의 경기를 직관하러 수원실내체육관을 찾았다. 평일 경기임에도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왔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12월 22일 현재까지 엄청난 경기력으로 V리그 선두(15승 1패)를 달리고 있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1등이라면 스포츠 팬으로서 이보다 좋을 순 없다.

현대건설선수단의 소개가 이어지고 팬들의 환호성 속에서 선수들이 등장하였다. 경기 시작. 첫 서브와 첫 리시브의 긴장감, 숨죽인 관중들, 심판의 호각 소리. 직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쾌감이다. 경기는 의외로 쉽게 흘러갔다. 초반에 얼치락뒤치락하던 경기는 중요한 순간마다 현대건설 선수들의 특점이 이어지며 세트스코어 3대0 셋아웃으로 경기는 종료되었다.

내가 뽑은 경기의 MVP는 단연 '야스민' 선수였다. 중요한 순간마다 이어진 서브 에이스와 강력한 스파이크 득점으로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 경기 후 현대건설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야스민에게 <피어오름 프로젝트> MVP투표를 하였다.

그리고 직관의 또 다른 묘미는 TV 중계화면에 잡히지 않는 워업존(warm-up zone)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코트 위의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언제든지 경기에 투입될 수 있게 몸을 풀고 있다. 많은 신인급 선수들이 그곳에 있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프로에 지명되었고 언젠가는 코트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피어오름 프로젝트>는 그 워업존을 응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코트의 워업존 뿐만 아니라 많은 유소년 선수들이 각자의 워업존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피어오름 프로젝트>가 디딤판이 되어 그들의 미래를 꽃 피우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워업존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날을 기다리는 선수들.



SBI 저축은행 × 현대건설배구단

**피어오름 프로젝트 MVP**

#유소년배구후원 #매경기후원금액립 #오늘의MVP

# SBI의 새얼굴을 소개합니다

- Q1. 내가 가진 특별한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Q2. 내 인생의 롤모델과 그 이유는?
- Q3.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 Q4. SBI저축은행 입사 후 2022년 이루고 싶은 것은?

성공의 첫걸음은 자신만의 '롤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성격과 기질을 알고 강점을 키워가면 성공은 더 가까워 집니다.  
SBI의 새식구들이 꿈을 키워가기 위해, 그들만의 특별함을 자랑합니다.

## 임종민 리테일영업1팀

- Q1 ESFJ처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극복하는 힘.
- Q2 스티브잡스, 심플하면서도 자신의 분야에 최고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Q3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
- Q4 일 잘하는 리테일 영업1팀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 송민아 기업금융1팀(A)

- Q1 모두를 편하게 하는 힘.
- Q2 부모님. 30년간 직장에서는 인정받으시고 가정에서는 부족함 없는 부모님으로 어디에도 소홀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 Q3 주말 낮, 영화 한 편 보는 시간.
- Q4 빠르게 적응하여 능력 있는 SBI인으로 자리잡는 것이 새해의 소망입니다.



## 최영현 기업금융3팀(A)

- Q1 사람들과 잘 융화되려는 유연함이라 생각합니다. 유연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영업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싶습니다.
- Q2 지금까지도 항상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대해주시는 부모님.
- Q3 업무 종료 후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료들과의 저녁 시간.
- Q4 "이건 최대리가 잘 알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형철 정보보호팀

- Q1 안좋은 일은 쉽게 떨쳐내는 긍정적인 마음.
- Q2 아버지. 부지런함과 성실함,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닮고 싶습니다.
- Q3 하루를 마무리 하는 잠들기 직전.
- Q4 팀원들과 친해 지기, 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윤환식 기업금융2팀(B)

- Q1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는 힘입니다.
- Q2 제가 부족한 많은 점을 가지고 있고, 미래의 저의 모습을 보게 하는 아버지.
- Q3 따뜻한 물로 샤워 후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 Q4 업무습득과 사내의 많은 분과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 변상희 영업서비스팀

- Q1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텨내는 인내심.
- Q2 아버지 / 가족을 위해 힘든 회사생활을 다년간 버텨오셨기 때문
- Q3 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 Q4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회사에는 이익을 줄 수 있는 SBI저축은행 서비스 안정화.



## 2021년 대한민국 금융대상 정진문 대표이사 저축은행대상 수상

SBI저축은행 정진문 대표이사가 국내 최고 권위의 금융인 시상식인 '2021 대한민국 금융대상'에서 '저축은행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1 대한민국 금융대상'은 코로나19 위기를 굳건히 이겨내며 각자 영역에서 금융산업 미래와 잠재력을 보여준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 심사위원들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적극 나선 금융인 7명을 선정하였다. 정진문 대표이사는 모바일플랫폼 사이다뱅크를 통한 저축은행 중금리 시장을 선도하고,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저축은행대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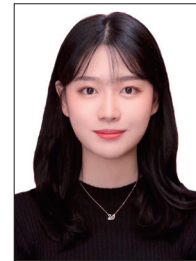


## 제26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채널1팀 김주현 팀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제26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장관상(개인부분)을 SBI저축은행 기업금융본부 채널1팀 김주현 팀장이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개인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행사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김주현 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하여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여 신용 대출, 매출채권 유동화 대출을 적극 취급하였고, 국가 기반 산업인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 제16회 금융공모전 명동지점 홍수빈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제16회 금융공모전'에서 명동지점 홍수빈 지점원이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금융공모전은 국민들의 금융 및 금융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우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발굴·보급을 도모하는 행사다.

홍수빈 지점원은 이번 공모전에서 성인 금융콘테스트 부문 체험수기 '금융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필요합니다'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업무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수기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지식 부족에 대한 우려와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수빈 지점원은 "평범한 일상 중 갑자기 큰 상을 받게 되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꾸준하고 올바른 금융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금융지식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수상소감을 말했다.

## SBI저축은행 ‘올해의 SBI人賞’ 시상



SBI저축은행이 11월 1일, 을지로 본사에서 창립기념일을 맞아 올해의 SBI인상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올해의 SBI인상 시상에서는 매각 규모 확대를 통한 연체율 개선과 FY21 사업목표를 초과달성한 리테일클렉스팀 김용현 팀장과 차별화 영업전략을 통한 자산 Build-Up에 기여한 채널2팀 이동주 팀장이 SBI인 상을 수상하였다.

수원지점 진희경 지점원은 햇살론 관련 업무에 있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해 SBI인 고객감동대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 2021년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인 박철희, 조용호, 최문석, 김동희, 임하경, 맹원주, 김관동, 김성준, 조수현이 SBI인 Credo상을 수상하였다.

SBI Compliance상에는 리스크관리팀 최문석, 리테일영업1팀 김영민, 기업금융1팀 이동윤, 청담지점 임정환이 수상했으며, SBI 자금세탁방지업무 우수상은 잠실지점과 청담지점이 영광을 안았다.

## SBI골프단 프로골퍼 ‘문정민’ 2022 시즌 메인스폰서 계약



SBI저축은행은 프로골퍼 문정민 선수와 2022시즌 메인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SBI골프단은 매년 유망 골프 선수를 발굴해 최정상급 선수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프로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정민 선수는 2021년 KPGA 입회 이후 점프투어와 드림투어에서 상위 랭크를 유지하며, 4번째 대회 만에 프로 첫 우승을 거두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가진 선수다. 문정민 프로는 압도적인 드라이브 거리뿐만 우수한 실력을 갖췄으며, 또한 집중력, 자기관리 능력, 성실함, 인성을 모두 갖춰 꾸준히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 국내 최정상급 선수로 성장하도록 지원

SBI골프단은 문정민 선수뿐만 아니라 소속 프로골퍼들이 국내 최정상급 선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SBI골프단은 현재 2020년 US 오픈 우승과 KPGA 통산 2승을 거둔 장타 여왕 김아림, 국가대표 출신 KPGA 통산 3승 바람의 여왕 이소미 등 국내외 유명 선수들과 문정민 선수의 합류로 2022시즌을 맞게 되었다.





## 은행저축프로젝트 4번째 반려 은행 입양 프로젝트 ‘은행, 다시 사랑받을 곳으로’



은행저축 프로젝트 Season 4

잘려나갈 위기에 처한 은행나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반려 나무 입양 프로젝트 <은행, 다시 사랑받을 곳으로>

2021년 SBI저축은행의 4번째 <은행저축 프로젝트> ‘반려은행 입양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고약한 열매 냄새 때문에 교체수종으로 지목 받고 있는 은행나무를 그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입양시켜 주었다.

먼저 은행나무를 아껴줄 분들의 사연을 SBI저축은행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접수받았다. “세 살배기 우리 학교에 큰 나무를 심고 싶어요”, “우리 아기 태명이 ‘은행이’예요 아이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은퇴 후에 함께할 반려나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 많은 사연이 접수되었고, 이 중 특별한 사연을 가진 입양자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SBI저축은행이 직접 민원이 많은 도심 속의 은행나무를 굴취하여 다시



사랑받을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하여 정성스럽게 심어주며 입양을 완료하였다.

그렇게 도심에서 외면받던 은행나무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친구로, 허전했던 동네의 지킴이로, 은퇴 후 함께할 벗으로. 그렇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곳에서 반려나무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우리가 필요해 심은 도심 속의 은행나무를 잠깐의 불편한 때문에 외면하기보다 다시 사랑받을 곳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SBI저축은행의 착한 캠페인. 더 많은 은행 나무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SBI저축은행의 <은행저축 프로젝트>는 계속될 예정이다.

## SBI저축은행 소외 아동을 위한 장기적 사회공헌활동

### SBI저축은행, 5년째 소외이웃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SBI저축은행은 노원구 관내 소외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SBI저축은행 본사와 노원구청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SBI저축은행이 정성껏 준비한 사랑의 김장김치 6천 포기는 노원구 사회복지지설 44개소(개인 1,400 가구)에 직접 전달된다.



### 학대·결식·파산·위탁보호종료 등 소외 아동후원 매년 강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등 우리 주변 소외 아동들의 생활환경이 점점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SBI저축은행은 학대, 파산, 결식, 위탁보호종료로 소외 아동을 위한 아낌없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사랑의열매와 협약을 통한 학대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활동과 결식 우려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지난해에 이어 확대 강화하여 지속하고 있다. 또한 사회연대은행, 사랑의열매와 파산가정 내 아동 후원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파산가정의 경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구세군과 진행 중인 ‘위탁보호종료 청소년’ 후원은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을 위한 지원금을 주는데 청소년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보증금으로 쓰이게 된다. SBI저축은행은 소외 아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소외아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SBI저축은행 매거진 <희망저축>은 임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두 귀를 쫓긋 세웁니다.  
홍보팀 유희근(koomtle@sbisb.co.kr)에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

가족, 동료,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에 도전해 보세요.  
체험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드립니다.

### <SBI pick's> 설문 참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희망저축 설문> 이벤트 참여

모바일 사보(<http://sbiwebzine.co.kr>)에 접속하여 '설문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으로 더욱 알찬 희망저축을 만들겠습니다.

### 편집후기

#### “우아하게 나이 들기”

매년 새해가 밝아오면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 올 한 해도 무탈히 지나가길 바라는 염원 등.

하지만 그 감정을 '나이'라는 것에 한정 지으면 대부분 안타까움만 더해집니다. 특히 저는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물론 4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내 사고는 철막서니 없는 고등학생과 같은데, 내 나이는 이제 40이라는 숫자로 다가가고 있고,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아직 20대로 보이지 않을까?'라며 서로 위안을 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착각에 빠진 '아저씨' 일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기 위해 비싼 편을 하고, 상의는 밝은 원색으로, 하의는 9부로 발목을 살짝 보이게 입어 보지만, 누가 봐도 멋 부린 '아저씨'입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더 이상 젊고 밝은 에너지만 뿜어내는 청년으로 보이기에겐 글렀죠.

그래서 이제 어려 보이기 위해 애쓰기보단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우아하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아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저장공간이 넓어 많은 사람과 상황들을 포용할 수 있고, 항상 주변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나이 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의 좀스러움과 한 번씩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기괴한 능력이 오히려 꼭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구요.

임인년 새해. 누군가에게는 20살 성인이 되는 기쁨으로, 누군가에게는 중년으로 무르익어가는 멋짐으로, 누군가에게는 노년의 아름다움으로 시작되었을 겁니다. 2022년은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우아함으로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홍보팀 유희근

##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3월 25일(금)까지 홍보팀 유희근(koomtle@sbis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 호 다른 그림찾기 정답

